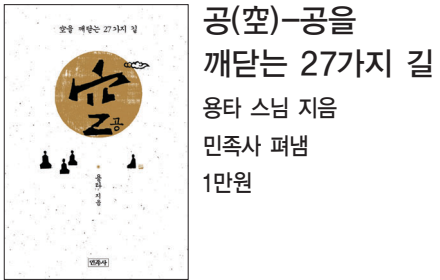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9 ~ 2/4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어느 불교무신론자의 고백	스티븐 배럴리 공리	
2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7	능가경 강의	남희근 부기	
3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웅화	8	공 - 공을 깨닫는 27가지 길	용타	민족사
4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생앤파커스	9	화되지 않는 43가지 습관	마노 슌모	담앤북스
5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10	선설장론	종카파	운주사



일체 고뇌 벗어나는 길 27가지



“왜 공(空)을 깨닫고 체험해야 할까?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눈앞에 전개되는 세상에 대하여 공장 ‘있다!’는 관점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있다고 여기는 대상을 본별 시비 집착하면서 갖가지 고뇌를 만들어 냅니다.”

책의 목적은 ‘공(空)’을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다. 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선불교, 현대 심리학, 상담학 등을 받아들여 ‘동사섭’을 창시한 용타 스님(사진)의 <공-공을 깨닫는 27가지 길>이다. 책은 저자인 용타 스님이 연기(緣起), 무아(無我)와 아울러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을 깨닫는 길 27가지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놓은 것이다.

인류의 삶은 크고 작은 고뇌로 점철되어 있다. 죽음에 대한 고뇌, 병에 대한 고뇌, 늙음에 대한 고뇌, 원하고 원치 않는 것에 대한 고뇌, 만족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고뇌 등 인간의 삶이 그러함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필자는 “인류 역사는 한쪽으로 이러한 고뇌의 늪에 빠져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러한 고뇌를 해결하고자 애씁니다. 음지와 양지의 시소게임이지요. 그나마 착한 마음으로 양지 늪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양지 늪을까지도 결국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고 말한다. 전 인류의 삶에 만연해 있는 일체 고뇌를 원천봉쇄하고 근본색연해 버릴 수 있는 길을 없을까? 필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한 조사와 선각들이 제시하는 ‘공(空)’에 있다고 말한다.

책의 주제는 공리(空理-공의 이치)이다. 불교를 공문(空門)이라고도 하는 것은 공(空)이 불교의 가르침의 전부라고 할 만큼 공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대학 2학년이던 1963년 반야심경의 색즉시공을 이해하면서 일생일대의 환희를 체험했다고 한다. 그 이래로 공은 그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자연히 공의 이치에 대해서, 공의



‘고통’ 벗어나려면 ‘공’ 깨달아야
‘공’ 깨닫는 접근법(空理) 27가지
‘연기법’ 고통받는 ‘구원해탈론’

이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온 셈이다. 그 결과, 출가수행 중인 1978년 즈음 공을 깨닫는 접근법 20개를 정립했고, 그 후로도 접근법을 하나씩 더 보태어 모두 27개가 되었다. 그 27개의 접근법이 책이 소개할 공의 이치(空理)이다. 그리고 그 27개의 공리는 현재 필자가 운영하는 동사섭 수련회 고급 과정에서 교재로 쓰이고 있다.

용타 스님이 창시한 동사섭은 정체(正體), 대원(大願), 수심(修心), 화합(和合), 작선(作善)이라는 삶의 5대 원리를 바탕으로 한 마음수련프로그램이다. 천하의 주인인 내가(正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大願) 먼저 마음을 닦아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修心), 주변과 평화롭게 지내며(和合), 세상을 위해 역할을 잘한다(作善)는 것이다. 동사섭은 일반과정, 중급과정, 강사과정, 지도자과정, 청소년행복캠프 등을 통해 그동안 2만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고급과정에서 ‘돈망(頓忘)’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지고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책은 동사섭 고급과정의 교재로서 내용을 음미하여 스스로 체득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공을 깨닫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용타 스님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한다. 고통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해탈해야 하고, 해탈을 위해서는 ‘없는’ 것을 ‘없다’고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이 책자는 그 없음의 이치, 곧 공리를 깨닫게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을 통해 완벽하게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음을 역설한다.

“모든 개체는 연기적 존재이므로 비실체요, 무실야요, 무아요, 비아요, 공이다. 즉 존재계는 모두가 한 덩어리 유기체로 그러면 개체도 연기의 고리를 끊어내고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어떤 존재를 실제로 여길 때는 그것이 본별, 시비, 집착의 대상이 되지만, 만일 비실체, 공 공임을 안다면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나와 세상이 있다고 여기면 집착으로 인한 괴로움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나와 세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집착할 만한 대상이 본래 없으므로 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렇듯 이 책의 27가지 공리를 읽음으로써 공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환희의 대자유와 지극한 행복감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말한다.

책의 앞뒤로 편집되어 있는 두 편의 해제인 ‘꼭 먼저 읽을 거라’와 ‘공의 역사적 의미’는 독자로 하여금 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가르침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의식 속에 공이라는 깨달음이 들어서게 되었으니 연기법이야말로 인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해탈론임을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본문 중간중간 편집되어 있는 통치 스님의 판화는 시각적인 깨달음을 선사한다. 본 책 외에 부록으로 작은 휴대용 소책자도 함께 발행했다.

백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용타 스님은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대학원 동양철학과에서 ‘불교의 선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24세에 청화 대선사를 은사로 득도했으며, 승려 신분으로 10여 년의 교직 생활 후 제방선원에서 20 안거를 성만했다. 현대 성문불교문화재단 이사장, 귀신사(歸信寺) 회주, (재)행복마을 회주로 있다. 저서로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10분 해탈>이 있다.

어느 경전에서도 볼 수 없는 철두철미한 문답

능가경(楞伽經) 강의

남희근 지음 | 신원봉 옮김 | 부기 펴냄 | 2만5천원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달마가 심인(心印)을 이조(二祖)에게 전하고서 다시 말하기를, “나에게 <능가경> 네 권이 있어 이것도 너에게 주노라. 이는 여래의 심지 요 문이다. 이제 여러 사람에게 가르쳐 깨달음에 들도록 하라.”고 했다.

선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에 앞서 초기 선종의 소의경전이었던 4권본 <능가경>이 번역되어 나왔다.

<능가경>은 네 권짜리 말고도 열 권짜리 <입능가경>과 일곱 권짜리 <대승입능가경>이 있다. 달마대사 생존 시 <능가경>은 네 권짜리 말고도 열 권짜리가 있었다. 하지만 네 권짜리를 전한 것은 열 권짜리가 비록 양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네 권짜리 역시 문체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었지만 심인으로 가깝게나마 통째로 전해지지 않았다. 단지 문장이 고풍스럽고 간결해 정확한 해독이 어려웠다. 달마대사가 이조에게 소의경전으로 <능가경>을 전했지만 후대에 이르러 <금강경>에 소의경전의 자리를 내주고

만 것도 이 때문이라고 역자는 말한다. 우리나라 불자들이 <능가경>을 생소하게 여기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경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더라면 지금까지도 선종의 핵심 경전으로 널리 읽혔을 것이라고 또한 역자는 말한다.

<능가경>의 요묘한 뜻은 본래 성(性)과 상(相)을 융화 관통하여 공(空)과 유(有)가 다르지 않음을 제시한 것이다. 부처님이 <능가경>을 설한 곳은 인도 남해 바다 사자국(스리랑카)의 ‘능가산’ 정상이다. 이런 지리적 이해를 넘어서면 ‘능가(楞伽)’란 보석 이름으로, 달리 도달할 수 없고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뜻이 있다. 실제로도 능가산은 험준해서 사람이 오르기 어려웠기에 그 어려움을 불법에 비유해 ‘능가경’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곳에서 비구와 대승 보살도를 닦는 제자가 모여 모인 가운데 대승의 상좌 대혜선사의 백여 가지가 넘는 인생, 물리, 우주 등 다양한 질문이 한꺼번에 이어지고, 이어 부처님이 질문을 간략히 요약 반복한 다음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경이 시작된다. 이후 경문은 끝까지 대혜선사와 부처님의 문답으로 이어진다. 때로 계승으로 문답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경과 다르게 부처님에 대한 찬사나 다른 대보살이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두 사람의 문답만으로 마음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탐구해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능가경>의 흥미로운 부분이다. 어느 경전도 <능가경>처럼 철두철미

한 문답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처럼 독특한 구성을 하고 있는 <능가경>은 과장이 없이 소박한 경전으로, 다른 경전들처럼 부처님에 대한 찬미의 계승이 반복되거나 부처님이 신통력을 발휘하거나 다른 불보살들의 경외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다. 또한 <능가경>은 수행자를 위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일관되게 반복하는 것은 ‘실현’에 대한 강조이다. 자기 마음을 닦아 부처님이 자각내증한 깨달음에 이르러는 것이다. <능가경>은 이론이 분분했던 후기 대승 경전만큼 여러 외도들의 논점과 그에 대한 비판이 유독 많은데, 경은 대혜선사의 집요하리만치 파고드는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과 외도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조목조목 짚어준다.

이번 남희근 대사의 <능가경 강의>는 4권본을 대본으로 하되 7권본과 10권본을 모두 참조하고 그 장점을 취해 일본의 내용이 잘 통하도록 했다. 간결하고 아름다운 문장이 특징이며 원문의 어투와 경전의 성격을 감안하여 설명이 간결하고 핵심만 짚어준다. 번역문과 그에 대한 사견을 분리해 좋았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구어체를 사용해 해설자를 직접 대면하고 체험을 듣는 듯하다. 원주와 역주 그리고 불교사전에서 정리한 용어풀이를 통해 불교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다른 참고서적 없이도 읽는데 별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백재원 기자

티베트불교의 정수 맛볼 기회

불경의 의미와 불요의를 분별한 선설장론

종카파 지음 | 범천 역주 | 운주사 펴냄 | 1만5천원



<보리도차제론>, <밀도차제론>, <입문선현밀의소>, <중론정리해소> 등과 함께 티베트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학자이자 수행승으로 제2의 부처로 추앙받는 종카파 스님의 저서 중의 하나로 평가되며, 더욱이 불경의 의미와 불요의를 구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즉 교상

판석의 논서로서 티베트불교에서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논서다.

이 논서는 티베트불교의 대표적 종파인 겔룩파에서 불교학수과정 중 필수과목이며, 달라이라마가 항상 지니고 탐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서의 내용은 크게 유식파의 입장(해밀심경)에 의거한 입장에서 교관한 부분과 중관파의 입장(무진해경)에 의거한 입장에서 교관한 두 부분으로 나뉘며, 중관파의 입장에는 또 자립파와 귀류파의 입장이 있다. 이 중에서 티베트불교가 받아들이는 입장은 바로 중관귀류파의 입장인데, 티베트불교에서는 귀류파가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한

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서는 내용 자체가 난해하고 여러 교파들의 각각 다른 주장과 미세한 차이들을 다루고 있는데다 한국의 불자들에게는 생소한 개념들로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읽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복잡하면서도 치밀하게 전개되는 논리의 향연은 조금만 주위를 흐트러면 그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이 논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 태도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은 어느 누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명 부처님의 말씀일지라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다. 티베트불교에서는 교육과정 속에서 이 논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기를 수없이 거듭한다고 한다. 티베트불교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기회다.

백재원 기자

현실 속에서 깨달음의 삶을 펼친 근현대 선사 6인의 생생한 범거랑 해설
한국 불교의 흥중조인 경허대사와 수월·만공·혜월·한암·용성선사의 사자후!

경허대사와 5대 제자 **이wert 선지식 총서 1**

콧구멍 없는 소 김성우 역음 | 46판 | 218쪽 | 11,000원

보이는 물질이 곧 해인海印이요 들리는 소리가 곧 장경藏經이로다!
“눈뜨고 세상을 보니 우주와 내가 바로 禪” 우리 시대의 大人 성수 큰스님이 남긴 선문답과 법문

성수 대종사 선어록 **이wert 선지식 총서 2**

세상선世上禪 산수도山水道 김성우 역음 | 46판 | 319쪽 | 12,000원

“전인 미답지가 궁금하느냐? 잔물결 이는 개울로 가서 세수나 하거라!”
화두, 간경, 염불, 보현행원 등 통불교적 수행으로 최상승선 깨닫게 한 정일선사의 사자후!

정일선사 선어록 **이wert 선지식 총서 3**

전인 미답지를 일러주마 정일선사법어집편찬위원회 역음 | 46판 | 219쪽 | 11,000원

나고 죽는 이전의 이것은 무엇인가? 존재의 본질을 묻는 근본 질문, “어디서 왔소?”
일상의 선문답으로 自性を 깨닫게 하는 송광사 천지암 조실 환안 큰스님의 사자후!

환안큰스님의 禪법어집 **이wert 선지식 총서 4**

어디서 왔소? 김성우 역음 | 46판 | 309쪽 | 12,000원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hopia5@daum.net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와 전통가구의 정겨움을 담은 **수풀림 통판 찻상**

100% 국내제작

소나무 원목을 사용하여 전통가구 장인이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한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나뭇결의 아름다운 문양이 살아 숨 쉬는 고급스러운 찻상입니다.

- 늘 곁에 두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담한 크기
-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소나무 나뭇결 문양
- 낙동법을 사용한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하여 튼튼한 내구성 보장

정가 150,000원 **할인가 90,000원**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999-1080